

카타르 단교 사태 장기화 우려

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 (✉ khryou@kiep.go.kr)

주요내용

- ▶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아랍권 국가들이 잇따라 카타르와의 단교를 선언한 이후 양측(카타르, 아랍권) 모두 외교 정상화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역내 경색 국면이 유지되고 있음.
- ▶ 카타르는 아랍권 4개국의 통행 차단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수송로를 도입하고,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증산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단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음.
- ▶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LNG 수입 및 국내 건설사들의 현지 공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이슈 현황

- ▶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아랍권 국가들이 잇따라 카타르와의 단교를 선언한 이후 양측(카타르, 아랍권) 모두 외교 정상화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역내 경색 국면이 유지되고 있음.
- 이번 단교 사태를 주도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바레인 4개국은 지난 6월 22일에 외교 정상화 조건(13개 항목)을 카타르 측에 제시하였으나, 카타르는 이를 전면 거부하였음. 외교 정상화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역내 경색 국면이 유지되고 있음.
- 이에 4개국은 7월 19일에 외교 정상화 조건을 6개 항목으로 축소하여 재차 카타르 측에 전달하였으나, 카타르 정부 대변인실은 해당 국가들이 '위험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있다(have acted dangerously and in a disorganized manner)'고 언급하며 이를 비판함.
- 이번 단교 사태에 중재 역할을 자처한 쿠웨이트, 미국, 프랑스 등의 주요 국가들은 양측 순방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번 단교 사태 해결을 위해 알 아흐마드 알 사바 쿠웨이트 국왕(6월 5일~7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7월 10일~14일), 장이브 르드리아 프랑스 외무장관(7월 15일~16일) 등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관련 국가들을 방문하여 주요 인사들과 회동하였음.

- 한편 7월 17일 워싱턴포스트(WP: Wasington Post)가 미 정보당국을 인용, 이번 사태를 촉발한 카타르 관영 통신사(QNA: Qatar National Agency)의 ‘해킹 오보 사건’에 UAE가 개입했다고 보도함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음.

2. 원인과 분석

- ⇒ 카타르는 아랍권 4개국의 통행 차단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수송로를 도입하고,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증산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단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음.¹⁾
- 카타르는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수입하여 온 육류, 유제품, 설탕 등 주요 식료품을 현재 이란과 터키에서 공수하고 있고, 인도와 오만에 각각 2개, 터키에 1개 등 총 5개의 신규 해상 수송로를 도입하였음.
- 더불어 지난 7월 4일에는 카타르 국영석유공사(QP: Qatar Petroleum)가 향후 수입원 안정을 위해 2024년까지 자국의 LNG 생산량을 매년 30%씩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함.
 - 카타르는 전 세계 LNG 생산량의 30% 이상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LNG 생산국으로 현재 연간 생산량은 7,700만톤 수준임.

3. 전망과 시사점

- ⇒ 이번 단교 사태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오던 카타르에 대한 아랍권 국가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인 만큼 어느 한쪽의 양보가 없는 한 경색 국면이 지속될 수 있음
- 카타르는 1995년 전 국왕 부임 이후 아랍세계의 대의명분보다는 국가 실리를 우선시하는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유지해오며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장기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옴.
 -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아파 이란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역내 국가들에 의해 테러 단체로 지정된 무슬림형제단(the Islamist Muslim brotherhood)에 대해

1) 단교 발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바레인 등 카타르와의 육로 통행과 더불어 항공기 및 선박의 왕래를 전면 차단하였음.

서도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등 균형적인 외교 노선을 이어왔음.

□ 카타르는 외교 정상화 조건을 거부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아랍권 국가들 역시 정상화 조건 수용 외에는 타협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LNG 수입 및 국내 건설사들의 현지 공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카타르가 한국의 최대 LNG 수입국인 만큼 단교 사태가 장기화되어 중동 정세가 계속해서 악화될 경우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

- 한국은 카타르로부터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37%를 수입하고 있음.

□ 카타르의 육로가 봉쇄된 상황이 장기화 될 시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국내 건설사들의 현지 공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카타르에서는 국내 17개사가 총 110억 달러 규모의 중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EMERiCs

참고문헌

- Bloomberg, Al Jazeera 등 국내외 각종 언론자료 종합

알립니다

-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